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18. 4. 25. / (총 13 매)	과장 / 담당	전화번호
담당 부서	감염병감시과	박혜경/권정란	043-719-7160/7165
	매개체분석과	조신형/이상은	043-719-8520/8525
	검역지원과	박기준/손태종	043-719-7140/7144
	혈액안전감시과	김준년/김민주	043-719-7660/7661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 세계 말라리아의 날(4.25일) 맞아, 말라리아 감염 주의 당부 -
- 국내·외 위험지역* 여행 시, 모기 기피제, 긴 옷 등을 이용하여 모기물림 주의
 - 말라리아 발생 국가에 따라 약제내성 및 발생현황이 다르므로 해외여행 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 후 필요시 적절한 예방약 복용
 -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 방문하여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권고
- * 붙임 4, 5 참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11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자 및 여행객과 해외 말라리아 발생 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 중국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좌) 및 유충(우) >

○ 말라리아는 매개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열원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 중 하나로 현재까지 총 5종*에서 인체감염이 가능하다.

- * 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
- 우리나라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10월에 삼일열말라리아가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의 거주자(군인 포함) 및 여행객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 [붙임2. 말라리아 발생현황] 자료 참고

- 신속한 진단·치료가 필요한 열대열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여행을 통해 연 평균 70건 내외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대책을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 말라리아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말라리아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원충감염 감시 등을 실시하며,

- 매년 전년도 환자 발생현황을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모기집중방제, 말라리아 예방물품(진단키트, 치료제, 기피제 등) 보급,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수행하고 있다.

○ 또한, 열대열말라리아 환자 유입 시 필요한 치료제 비축을 위해 4개 기관*을 열대열말라리아 치료제 비축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 국립중앙의료원, 부산 중구보건소, 광주 동구보건소, 국립제주검역소

○ 수혈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말라리아 환자 및 말라리아 발생국가 여행자의 헌혈을 금지하고, 국내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붙임5. 말라리아 헌혈제한 지역] 자료 참고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여행 시 말라리아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모기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 국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예방약 정보, 예방수칙 등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또는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외출자제, 야간외출 시 긴 옷 착용, 야외취침 시 모기장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해외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지역에 따라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 * [붙임6. 상황별 말라리아 감염 예방 수칙] 자료 참고
- 해외여행 후 다음과 같이 말라리아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여행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초기에 권태감, 서서히 상승하는 발열 증상이 수일간 지속되고, 이후 오한, 발열, 땀흘림 후 해열이 반복되면서 두통, 구역, 설사 등이 동반된다.

- <붙임>
1. 말라리아 질병 개요
 2. 말라리아 발생 현황
 3. 말라리아 매개모기 현황
 4. 2018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5. 말라리아 헌혈 제한 지역
 6. 상황별 말라리아 감염 예방 수칙
 7. 말라리아 Q&A

붙임 1

말라리아 질병 개요

구 분	내 용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감염병(제3군) ICD-10 B50, B51, B52, B53, B54 ◦ '80년대 초반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국내 말라리아는 '93년 DMZ에서 복무중이던 군인에서 확인된 이후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 '00년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정점에 이르고('00년 환자수 4,183명), 이후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이 감소하여 최근 연 700명 이하로 발생 중 ◦ 국내에서는 삼일열말라리아만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유입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말라리아(열대열, 삼일열, 난형열, 사일열, 원숭이열)가 확인됨 ◦ 위험지역 : 국내(인천, 경기, 강원 북부지역), 해외(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이 가장 위험)
주요 원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lasmodium vivax</i> (삼일열말라리아), <i>Plasmodium falciparum</i> (열대열말라리아), <i>Plasmodium malariae</i> (사일열말라리아), <i>Plasmodium ovale</i> (난형열말라리아), <i>Plasmodium knowlesi</i> (원숭이열)
주요 매개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얼룩날개모기(<i>Anopheles sinensis</i>), 잿빛얼룩날개모기(<i>Anopheles pullus</i>), 클레인얼룩날개모기(<i>Anopheles kleini</i>) 등 얼룩날개모기속(genus <i>Anopheles</i>)의 암컷 모기
감염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속(genus <i>Anopheles</i>)의 암컷 모기가 인체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전파 ◦ 드물게 수혈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 ◦ 사람 간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음
잠 복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일열말라리아 : 단기잠복기(12-18일), 장기잠복기(6-12개월) ◦ 열대열말라리아 : 9-14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서히 발생하는 발열과 권태감이 초기에 수일간 지속됨 ◦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주기적 발열). 하지만 열대열말라리아의 경우 발열이 주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중증 환자(열대열말라리아)에서는 황달, 혈액응고장애, 신부전, 간부전, 쇼크, 의식장애·섬망·혼수 등의 급성 뇌증이 발생 ◦ 신속한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이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
진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리아 원충 확인(말초혈액도말검사) ◦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 확인(중합효소연쇄반응) ◦ 신속진단키트 : 보조적 진단법
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리아 유형, 여행지역에 따른 내성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약제 선택 ◦ 해외 여행객의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 종류와 약물 내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약제내성 열대열말라리아로 간주하고 치료할 것을 권고
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관리 : 혈액 격리(치료종료 후 3년간 헌혈 금지) ◦ 접촉자관리 : 필요 없음
예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여 감염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 ◦ 모기기피와 예방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 ※예방적 화학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로로퀸 감수성지역 여행 시: 클로로퀸(여행 1주일 전~귀국 후 4주간, 주1회) • 클로로퀸 내성지역 여행 시: 메플로퀸(여행 2주일 전~귀국 후 4주간, 주1회) • 메플로퀸 내성지역 여행 시: 아토바쿠온-프루구아닐(여행 1-2일 전~귀국 후 1주일까지, 매일) ※모기노출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충망, 모기장 사용 • 어두운 색 옷을 피하고, 긴 소매·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최소화 • 주로 모기가 흡혈하는 시간대인 저녁부터 새벽까지 외출 자제

붙임 2 말라리아 발생 현황

□ 국내 말라리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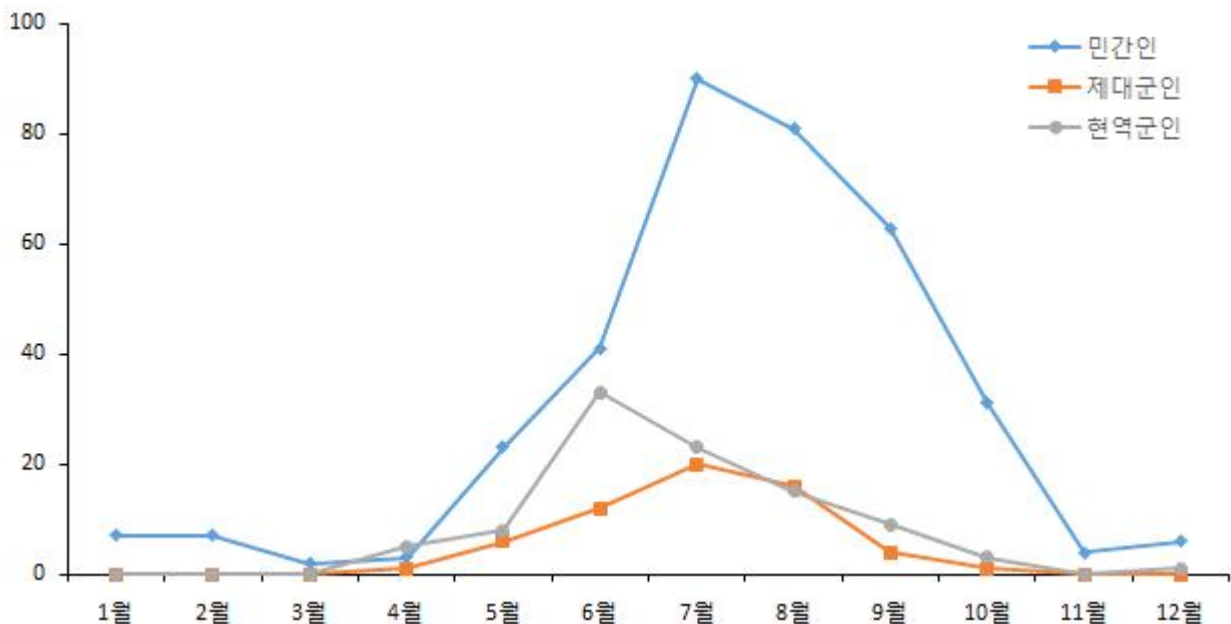
- '80년대 초반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국내 말라리아는 '93년 DMZ에서 복무중이던 군인에서 확인된 이후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 '00년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정점에 이르고('00년 환자수 4,183명), 이후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이 감소하여 최근 5년간 연 700명 이하로 발생 중

< 말라리아 연도별 환자 발생 현황, 2003-2017 >

구분/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1,171	864	1,369	2,051	2,227	1,052	1,345	1,772	826	542	445	638	699	673	515	
국내 발생	민간인	560	424	769	1,278	1,283	566	639	996	323	330	227	402	361	307	280
	군인	547	402	555	743	909	457	680	725	439	159	158	156	267	295	156
	소계	1,107	826	1,324	2,021	2,192	1,023	1,319	1,721	762	489	385	558	628	602	436
해외유입	64	38	45	30	35	29	26	51	64	53	60	80	71	71	79	

* 국내 발생은 모두 삼일열 말라리아, 이외 해외유입의 경우 대부분 열대열 및 삼일열 말라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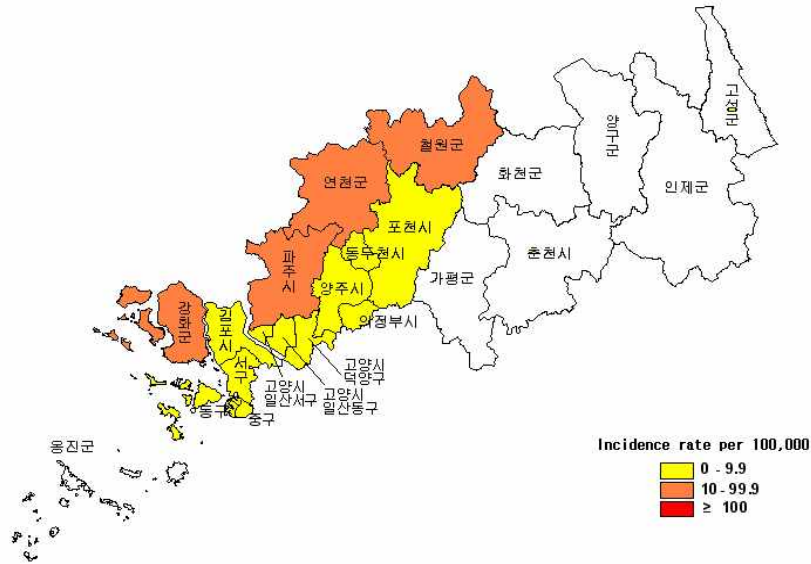
** 2017년 통계는 잠정통계임



주) 국외유입 제외

< 2017년도 말라리아 환자 발생 월별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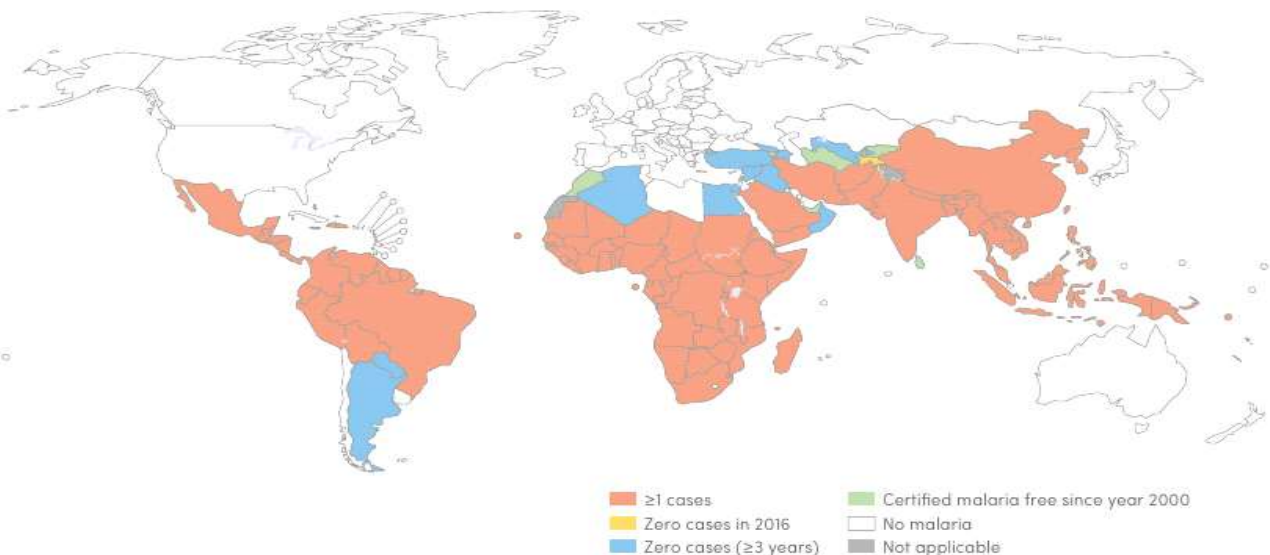
- 국내에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주로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



< 2017년도 국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 지역별 분포 >

□ 해외 말라리아 발생현황

- 전 세계적으로 91개국에 말라리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약 2억1,600만 명이 감염되어 이 중 44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¹⁾



< 2016년 말라리아 환자 위험 국가 분포¹⁾ >

1) WHO. WORLD MALARIA REPORT. 2017.

붙임 3 말라리아 매개모기 현황

□ 국내 서식하는 얼룩날개모기 종

- 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속(genus *Anopheles*)에 속하는 암컷 모기에 의해 전파되며, 국내 서식하는 총 8종의 얼룩날개모기 중 아래의 6종에서 감염 능력 확인

<i>Anopheles (Anopheles) sinensis</i> Wiedemann	중국얼룩날개모기
<i>Anopheles (Anopheles) lesteri</i> Baisas and Hu	레스터얼룩날개모기
<i>Anopheles (Anopheles) pullus</i> Yamada	젯빛얼룩날개모기
<i>Anopheles (Anopheles) kleini</i> Rueda	클라인얼룩날개모기
<i>Anopheles (Anopheles) belenrae</i> Rueda	벨렌얼룩날개모기
<i>Anopheles (Anopheles) sineroides</i> Yamada	가중국얼룩날개모기

□ 중국얼룩날개모기

- 우리나라에서 삼일열말라리아를 주로 매개하는 중국얼룩날개모기 (*Anopheles sinensis*)는 전국적으로 분포



< 중국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좌) 및 유충(우) >

붙임 4

2018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지역	분류	위험지역		
		위험지역	경계지역	주의지역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면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내유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토당동, 행신동, 화정동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식사동, 장항동, 정발산동, 중산동,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동, 주엽동, 탄현동 -김포시: 감정동, 대곶면, 마산동, 마송동, 양촌읍, 운양동, 월곶면, 장기동, 통진읍, 풍무동, 하성면 -남양주시: 오남읍, 진접읍 -동두천시: 상패동, 소요동, 송내동 -양주시: 광적면, 백석읍, 봉양동, 삼송동, 유양동, 은현면, 장흥면 -연천군: 군남면, 미산면, 백학면, 신서면, 연천읍, 왕진면, 장남면, 전곡읍, 중면, 청산면 -파주시: 광탄면, 교하동, 군내면, 금촌동, 동패동, 목동동, 문발동, 문산읍, 문정동, 법원읍, 산남동, 신촌동, 야당동, 야동동, 월릉면, 장단면, 적성면, 조리읍, 진서면, 탄현면, 파주읍, 파평면 -포천시: 신북면, 영북면	-가평군: 설악면, 청평면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대자동, 덕은동, 도내동, 용두동, 원당동, 주교동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설문동, 성석동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구산동, 대화동 -김포시: 걸포동, 고촌읍, 북변동, 사우동, 송진읍 -남양주시: 별내면, 와부읍, 일패동, 조안면, 진건읍, 호평동 -동두천시: 동두천동, 상봉암동, 생연동, 하봉암동 -양주시: 남면, 만송동 -양평군: 개군면, -연천군: 대광리, 왕징면, 적성면, 연천읍 -의정부시: 고산동, 용현동, 호원동 -파주시: 검산동, 격성면, 금릉동, 다율동, 맥금동, 모산읍, 문산면, 문한면, 와동동, 운정동, 월릉면, 자장리, 장남면, 적선면, 진동면, 현탄면 -포천시: 관인면, 내촌면, 소흘읍, 자삭동	가평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교동면, 내가면, 삼산면, 선원면, 송해면, 양사면, 화도면 -계양구: 계산동 -남 구: 주안동, 학익동 -남동구: 간석동, 구월동 -서 구: 가좌동, 경서동, 당하동, 대곡동, 마전동, 불로동, 심곡동, 연회동, 오류동, 왕길동, 원당동 -연수구: 옥련동 -옹진군: 북도면 -중 구: 덕교동, 신흥동, 운남동, 운서동, 향동	-강화군: 길상면, 서도면, 양도면, 하점면 -계양구: 동양동, 작전동 -남 구: 용현동 -남동구: 고잔동, 논현동, 만수동 -부평구: 부개동, 부평동, 산곡동, 삼산동 -서 구: 가정동, 검암동, 청라동 -연수구: 송도동, 연수동 -옹진군: 대청면, 덕적면, 백령면, 연평면, 영흥면, 자월면 -중 구: 무의동, 북성동, 선린동, 영종동, 운북동, 을왕동, 중산동	강화군 계양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강원		-고성군: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철원군: 갈말읍, 근남면, 근북면, 동송읍, 서면, 철원읍 -화천군: 사내면, 상서면	-고성군: 토성면 -인제군: 북면 -철원군: 관인면, 김화읍 -화천군: 화천읍	고성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

붙임 5 말라리아 헌혈제한 지역

○ 2017년 국내 말라리아 관련 헌혈제한지역('17.8.15 기준)

여행 및 거주년도	지역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 2017년	인천	강화군	제한	제한	제한
		옹진군	제한	제한	제한
		영종·용유도지역(중구 남북동, 덕교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중산동) 및 무의도 지역(중구 무의동)	제한	제한	제한
	강원	철원군	제한	제한	제한
	경기	파주시	제한	제한	제한
		김포시	제한	제한	제한
		연천군			제한
북한	백두산 제외 전지역	제한	제한	제한	

○ 2017년 말라리아 관련 국외 헌혈제한지역(대륙별)

대륙	구분	국가
아메리카	전지역	아이티(라바디 항구)
	일부지역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프랑스령기아나
아프리카	전지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소, 나이지리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프랑스령마요트,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브라자빌), 콩고민주공화국(킨샤사), 토고
		일부지역
	전지역	동티모르, 바누아트, 솔로몬제도
아시아/ 오세아니아	일부지역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버마(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 자료원 : www.cdc.gov/malaria/('17.8.15 update)

붙임 6

상황별 말라리아 감염 예방 수칙

<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

시기	예 방법
여행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에 물리지 않는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 모기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 기피제, 체류기간 체류장소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등)을 준비
여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외출을 자제 - 실내에서 잘 때 가급적 창문을 단도록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기장을 설치하고 취침 - 어두운 색은 모기를 유인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야간 외출 시에는 가능한 밝은 색의 옷을 입고 긴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도움 받을 수 있음 -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이용 -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 - 임산부는 체온이 높고 대사량이 많아 비교적 모기가 많이 유인되므로 각별히 주의
여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기를 권고 - 말라리아 관련 국내 헌혈제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 ~6개월 미만 숙박)시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

< 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

시기	예방법
<p>여행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에 물리지 않는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 모기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 하는 긴 옷, 항공기 등에 탑재 가능한 기피제, 체류기간·체류 장소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등)을 준비 - 해외에서 위급상황 시 바로 방문할 수 있도록 여행하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미리 파악할 것을 권고 - 각 국가별 발생하는 말라리아 종류 및 약제에 대한 내성이 다르므로 여행하는 국가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일열 말라리아만 발생하는 지역으로 가는 경우 클로로퀸이 주로 처방되지만, 클로로퀸 내성에 따라 아토바쿠온-프로구아닐, 메플로퀸, 독시사이클린 등 다른 약제 처방 가능 - 국가별 발생현황 및 약제내성 등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cdc.go.kr) 또는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에서 확인 가능
<p>여행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외출을 자제 - 어두운 색은 모기를 유인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야간 외출 시에는 가능한 밝은 색의 옷을 입고 긴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도움 받을 수 있음 -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이용 -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 - 임산부는 체온이 높고 대사량이 많아 비교적 모기가 많이 유인되므로 각별히 주의
<p>여행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리아 예방약의 경우 종류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길게는 4주까지 복용하여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적절한 복용법에 따라 복용기간을 준수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기를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여행 후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cdc.go.kr) 또는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에서 확인 가능 - 말라리아 관련 해외 헌혈제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 해당국가에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3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시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 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

붙임 7

말라리아 Q&A

Q> 말라리아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A>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됩니다. 드물게는 수혈 등의 병원 감염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Q>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A> 초기에는 권태감과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이후 오한, 발열, 땀흘림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두통이나 구역,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 종류에 따라 증상 및 재발기간 등이 다름

Q>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A>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주로 감염내과)을 방문하여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국내의 경우, 해외 말라리아와 달리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우리나라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어디인가요?

A> 국내 위험지역은 북한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북부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은 크게 3가지(위험, 경계, 주의)로 분류되며 읍면동 단위로 매년 지정됩니다.

Q>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도 예방약 복용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한다고 하여 예방약 복용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국내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 3년 평균 인구 10만명 당 10명이상 말라리아가 발생한 지역을 헌혈제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시는 1년간 전혈 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매년 감염병 감시연보 상 말라리아 확진통계 발표 후에 헌혈제한지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Q> 국외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 미국 CDC's yellow book의 국가별 말라리아 발생정보를 기준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